진노하시는 날에는 재물이 무가치하나

의로움은 죽음에서 구원하느니라 잠언 11:4 – 속담 이야기 Ted Hildebrandt 및 Chatgpt

두 개의 큰 강 사이에 자리 잡은 번영하는 왕국에 세드릭이라는 남자가 살았는데, 그는 막대한 부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함대와 광활한 비옥한 땅, 그리고 금으로 가득 찬 금고를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한 것은 재산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금은 모든 폭풍을 막아주는 방패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금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 왕국의 변방, 덩굴과 야생화로 둘러싸인 초라한 오두막에 조이라는 이름의 늙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보물은 친절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기쁨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병든 자들을 돌보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정의와 선함이 금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화폐라고 믿으며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세드릭은 전차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조이의 초라한 오두막을 자주 지나치며, 거대한 성벽 바깥에서 조이가 겪는 빈곤을 비웃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 동쪽에서 어두운 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날씨가 아니라 전쟁의 그림자였다. 복수심에 불타는 무자비한 대군이 온 땅을 휩쓸며 폐허만 남겼다. 왕은 영주들과 부유한 상인들을 소집하여 도시를 요새화했다. 세드릭은 자신의 부를 두려워하여 그들을 지하 깊숙이 가두고 금을 약속하며 용병들을 고용했다. "어서 오게 하라."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어떤 분노도 부의 방어선을 뚫을 수 없다."

하지만 분노가 빠르고 용서 없이 찾아왔습니다.

도시는 불타고 용병들은 달아났다. 세드릭은 작은 보석 자루를 움켜쥐고 연기 자욱한 거리를 달려 불타는 도시를 빠져나왔다. 그는 성벽 바깥 작고 초라한 오두막에 도착했는데, 조이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피난해 있었다. 침략군은 그런 빈민가를 외면했기에, 그 오두막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의 안식처였다.

세드릭이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게 해 줘!" 그가 소리쳤다. "내가 낼게! 보석이 있거든!"

조이는 그의 목소리를 알아봤다. 문 안에서 그녀는 농부에게 속삭였다. "문을 열어." 농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말을 따랐다.

안으로 들어가자 세드릭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다. 보석들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갔다. 그는 조이와 그곳에 숨어 있던 불쌍한 사람들, 아이들,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가득 든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침착했다.

그는 조이에게 돌아섰다. "왜 날 들여보냈어? 난 널 조롱하고 비웃었잖아."

조이는 그의 어깨를 살며시 만졌다. "금은 내 기준이 아니었지만, 자비와 정의가 기준이었어."

전쟁은 끝났다. 왕국은 천천히 재건되었지만, 부로가 아니라 정의로 재건되었다. 세드릭은 겸손해져서 거대한 금 창고를 팔아 이재민들을 위한 집을 지었다.

그는 남은 생애를 조이와 함께 보내며 신뢰, 친절, 충성, 그리고 정의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결국, 그를 구한 것은 금고에 있는 금화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무시했던 고대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 잠언 11:4 .